

Profession의 基準과 우리의 成長

<本協會 會長> 李 永 福

우리들은 看護業務가 단순한 직업 즉 job 이나 vocation 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고귀한 전문적인 직업 즉 Profession 이라고 해서 Professional person 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교육과 준비를 쌓고, 우리의 公的 혹은 私的 生活에 있어서도 Professional member 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하여 調整하면서 생활하고 일한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이 Profession 이란 어떠한 직업들을 말하며 또한 한 개의 직업이 Profession 으로 인정을 받는데는 어데다 그 基準(criteria)을 두는 것인가? 이방면의 전문가들이 진술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려보았다.

Profession 이란 전문적인 學術과 訓練으로 이루어진 한 직업인데 倫理的 要素와 利他的인 理念을 가지고 正當한 보수를 받으면서 행해지는 奉仕(Service)를 말한다.

그 基準의 骨子로는 :

- (1)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知識의 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 (2) 職務의 궁극적인 目的이 利他的이며 社會福祉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 (3) 認定된 科學的 原則에 立脚해야 된다.
- (4) 여기 속한 사람들은 적당한 준비 教育과 文化的, 社會的 훈련을 받아야 된다.
- (5) 끊임없이 일어나는 社會的 要求(그 직업에 대한)를 만족시켜야 된다.
- (6) 職業倫理와 職業良識(group consciousness)이 있어야 된다.
- (7) 大衆이 기대하는 能熱性을 보여주어야 한다.
- (8) 여기에 속한 要員들은 이 직업을 平生職으로 할만한 충분한 自律力이 있어야 한다.
- (9) 계속적인 研究와 職業의 向上을 위한 努力이 있어야 된다.

(10) 自律的이고 自治的인 組織的 活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을 앞에 놓고 우리 누구나가 다함께 생각하게 되는 몇 가지 점들이 있는 줄 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모—든 기준들에 도달했나? 하는 점이다. 물론 看護사업이 오늘날 Profession으로써 인정을 받았기에 우리들도 이 隊列에 서서 行勢하고 있음은 틀림없으나 혹시라도 한국의 간호사업이 그 어느것 가운데 하나라도 實質的으로 미달상태인데 補賈金으로 휩쓸려서 넘어간 것은 없나? 기준이라는 것은 주로 最低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몇몇 좋은 시설, 알려진 몇 사람의 最高水準을 가지고 우리의 基準이 도달되고도 남은듯이 錯誤 혹은 기반을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점이다.

둘째로는 이미 도달했다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成長했나? 數量上으로 別度上으로 또는 部分的인 成長은 물론 크다고 하겠으나 質的으로 內容的으로 또는 全體的으로 얼마나 成長했나 하는 점이다.

셋째로 생각할것은 우리들의 成長이 오늘과 같이 加速度的인 科學의 發達生活의 미약, 技術의 向上등이 이루어지는 이때의 他分野의 Profession 혹은 다른 醫療保健 혹은 女性活動과 비교해 볼때 얼마나 成長했나 하는 점이다. 즉 우리 自體의 成長을 생각할때는 대견하고 놀랍고 더구나 연이어 닥치는 民族的 受難속에서도 잘 견디고 자랐구나 하는것을 생각하면 感激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오늘의 한해가 지난날의 2, 30년의 역할을 하며 世界가 한집같이 좁아진 이때니 만큼 自體의 成長뿐 아니라 他體와의 成長과의 比較와 國際的인 位置문제등이 또한 意味깊은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現時點에 있어서 근거있는 評價의 結果도 없이, 충분한 材料나 統計도 없이, 더구나 制限된 紙面에다가 오늘날 한국간호사업을 Profession으로서의 각기 해당 基準에 비추어서 검토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본다. 특히 간호교육, 간호업무등 문제는 法的인 뒷받침, 行政的인 애로, 國家 豫算面의 문제, 社會大衆의 反應등 우리만이 결정하고 努力한다고 해서 좀처럼 解決을 보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 그러므로各自가 다시한번 各自單位로 도라가서 내 自身이 과연 Professional person으로써 얼마나 成長했나 하는점을 어떠한 尺度를 사용해서던지 잘 재보고 따져보며各自가 있는 그자리에서 最善의 使命感과 지식과 技術과 行政力과 誠意를 가지고 일함으로써 Profession 全體의 成長을 위한 피한틀이라도 기여함이 있기를 바랄뿐이다.

그런데 上述한 Profession의 基準가운데서 두가지 條項 즉 職業倫理를 固守해야 된다는 것과 自律的이고 自治的인 組織的인 活動을 해야된다는데 대해서는 몇字 더 紙面을 채우고져 한다. 특히 이 두가지 點에 대해서만이라

도 說明을 더해 보려는 것은 다른 여러 基準보다도 이 두 問題는 우리 自身들만이 작성하고 단결하고 運動을 展開하면 能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職業倫理의 확립이야 말로 看護事業의 質的인 問題를 左右하는 根本要素가 되는 동시에 오늘날 時急히 反省해야 될 艱박한 問題인줄안다. 人道主義的인 奉仕의 理念을 가지고 나의 平安이나 나의 利得보다는 被看護者 즉 내가 돌보는 환자의 平安과 福祉를 위하는 利他的인 志氣이 내가 스스로 택한 이 간호사업이란 點을 명심해야 될것이다. 原則과 公式을 의우는 일이나 器具를 使用하는 法은 한두번 누구에게 說明을 들어서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의 職業良識을 고취하는 것은 우리스스로의 自律的인 善意的 努力과 확고한 信念과 主見이 없이는 가지기 困難할줄안다. 이것은 우리가 願하던 所有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다음으로 自治的인 組織體의 活動도 우리들의 協會의 事務인고로 우리의 總意와 우리의 資源을 鑄아서 우리의 發展을 위한 일인 만큼 그 成長의 尺度와 成就의 여부는 우리 自信들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그동안 會員各自의 熱과 힘에 의해서 우리의 組織의 活動이 長足的인 發展을 한줄안다. 즉 組織을 통한 自體의 成長, 會員分布狀況의 精確한 파악과 카—드의 정리, 統計의 樹立, 會誌를 통한 Communication, I.C.N. 회원국으로서의 위치, 支部事業협조, 교환간호원파견, 학술연마, 女性단체로서의 活動등 많은 일을 하느라고 힘을 썼다. 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한편 늘 계획만 하고 실천에 약했던 會員들의 經濟福祉를 위한 일, 公報活動, 學術研究, 諸般法規와 基準등을 위한 연구등 할일이 많다.

이 모—든 일들을 활발히 능률적으로 執行하기 위하여는 일 할 수 있는 安定된 場所와 執行力있는 專任職員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理事會나 分科委員會에서 일에 대한 決意와 計劃은 아무리 훌륭하게 해놓드라도 各己 專門的인 人物들이 專任으로 충분한 時間과 安定된 事務室에서 일을 볼 수 있어야 成果는 올라갈 것이다.

또한 組織의 活動에는 會議가 重要한데 자주 逢이는 우리會의 적당한 會議場所가 필요하며 其他 도서실, 연구실등 우리들의 發展을 위하여 준비된 우리들의 會館도 우리힘으로 마련되어야 할줄 안다. 우리 會員 하나 하나가 다 나서서 專的으로 일하지 못하나 우리의 誠意와 힘을 舍하여 일 할 수 있는 忖전을 마린하고 우리들의 代議員을 통하여 우리의 적은 努力을 舍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實務를 執行할 수 있는 協會의 專任일꾼을 더 많이 세워야 될줄 안다. 이것이 成長되는 우리들의 믿음직한 모습일 것이다.